

# 영암



Young-Ahm  
Presbyterian Church



# 하나님의 열심

최정원 안수집사

어릴 적 받았던 우등상장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지만,  
착각이었네  
곧 수포자가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뿐

내려놓지 못한 채 입학한 신학대학  
주님의 청지기로 쓰여 질 줄 알았지만,  
착각이었네  
내 자아를 포기하지 못했을 뿐

세상을 바라보며 목에 건 사원증  
대기업 입사로 인생의 꽃길을 걸어 갈 줄 알았지만,  
착각이었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온갖 염려만 쌓여갈 뿐

손목에 둘러진 중환자 팔찌  
명의의 치료로 회복될 줄 알았지만,  
커다란 착각이었네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그제야 깨닫았을 뿐

착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내 손을 끌어올린 하나님의 열심  
주님조차 내 손을 놓은 줄 알았지만,  
가장 큰 착각이었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열심에는 쉼이 없기에,  
십자가 사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넓은 그 품 안에 안길 뿐  
아멘.



02	성시	하나님의 열심 · 최정원 안수집사
04	말씀의 샘물	헤른후트를 아십니까?
06	해외선교	아마호로! · 강병화 선교사
09	소그룹 사역	소그룹 사역의 나아갈 길 대답
12	교육부서 사역	중고청 찬양의 밤 행사 화보 모음 · 편집부
14		신앙의 방향을 다시 잡는 나침반 같은 시간 · 영유아부 조도현 성도
16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사 · 초등1부 박나엘
17		오늘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 초등2부 안채연
18		속도 보다는 방향 · 고등부 1학년 이고유
20		함께 부르신 하나님, 함께 걷는 공동체 · 청년부 박성빈
22	교회 사역/행사	본당 리모델링에 즐음하여… · 조규완 장로
25		하나님의 계획 속에 · 정동규 성도
26		사랑하는 여러분~운! · 김관식 안수집사
28		찬양한마당 화보 모음 · 편집부
30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과정을 마치면서… · 김남영 명예권사
31		일대일 제자훈련 · 이동진 안수집사
32	교회 내 섬김모임	낯선 방문객이 교회 가족으로 정착할 때까지 · 윤한결 안수집사
34		화요형제와 잘 박힌 뜻들 · 강소영 권사
36		「교사로, 또 교사로」 두 자리에서 만나는 영암의 아이들 · 김주선 교사
38		영암유치원 가족 · 영암유치원 학부모
39		갈비탕 만찬의 은혜도 함께 · 조찬기도회 조찬섬김
40		차 걱정은 마시고 편안한 예배를~ · 차량부
41	자유기고	하늘의 별이 된 원영이를 기억하며 · 최동석 집사, 신미자 집사
44		마지막 대표기도 · 이성환 은퇴장로
46	문화칼럼	105세 철학자의 현역 인생 · 강진구 안수집사
48	새가족 소개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50	영암소식	



2025 / No.142

## 헤른후트를 아십니까?



유상진 담임목사

헤른후트는 독일 작센주의 작은 도시로, ‘주님(Herr)이 보호하시는 곳(Hut)’이라는 뜻을 가진 마을입니다. 옛 동독 지역 북동쪽 끝에 위치한 헤른후트는 경건주의 부흥의 땅이요, 세계 선교의 지평이 열린 곳입니다. 이곳은 외조모의 독실한 개신교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친첸도르프 백작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받아들인 땅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보헤미아(체코)에서 종교개혁운동을 하다가 1415년 콘스탄츠공회에서 화형당한 얀 후스의 후예들입니다. 친첸도르프는 이들에게 자신의 사유지를 제공하여 정착하도록 도왔는데, 이들은 그곳을 “헤른후트”라 칭하고 1727년경 200여명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보헤미야에서 독일로 건너온 모라비안 이주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헤른후트의 모라비안 교회는 1732년 최초의 조직적인 개신교 선교 운동을 시작했는데,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를 시작으로 그린란드, 북미, 남아프리카로 선교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낯선 도시 헤른후트는, 개신교의 역사와 더 넓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첸도르프의 모라비안 공동체는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창설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헤른후트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모라비안 교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헤른후트는 2016년 유럽 개신교회 공동체로부터 유럽 종교개혁 도시라는 명예 칭호를 받았고, ‘모라비아 교회 정착지’ 연속 유적지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보헤미아(체코)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독일 헤른후트에 모라비안 공동체를 이룬 역사를 되짚는 이유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1832년에 충남 보령 고대도를 밟은 칼 귀츨라프 선교사(1803~1851)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츨라프는 1866년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보다 34년, 1884년에 입국한 의료선교사 알렌보다 52년, 1885년 입국한 미국 선교사인 언더우드, 아펜젤러 보다 53년이나 앞서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 방문한 선교사입니다.

귀츨라프는 최초로 한글 주기도문 번역을 시도했고, 최초로 한문 성경을 전달 했

으며(순조 대왕에게 『신천성서(神天聖書)』를 진상), 최초로 한글의 우수성을 서양에 체계적으로 소개하여 알렸고, 먹을거리가 없어 곤궁한 조선인들을 위해 서양감자 씨앗을 보급했고, 서양 근대 의술을 베풀며 약을 처방해주었습니다(1832년8월 2일). 이 기록은 조선에서 서양 선교사가 최초의 서양의술을 베푼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츨라프는 최초로 동북아(조선 중국 만주 일본)를 위한 체계적인 선교전략을 구상했습니다.(칼 귀츨라프 학회 자료 참고).

귀츨라프 선교사는 경건한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 18세가 되던 해 1821년 베를린 선교학교(Missionsschule in Berlin)에서 수학했습니다. 베를린 선교학교는 1800년 독일 최초의 선교사 양성 학교로 세워졌는데, 설립 배경에는 독일의 경건주의와 친첸도르프의 헤른후트주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회심을 경험한 귀츨라프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주님의 이름을 전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을 확립했습니다. 충남 보령시는 귀츨라프가 고대도 안항에 정박한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고대도 안항 근처에 귀츨라프 기념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주목받는 귀츨라프 선교사의 뿌리에는 보해미안의 개혁 신앙을 지켜준 헤른후트가 있습니다. 구 동독지역이었던 작은 마을 헤른후트에는 한국인으로 처음 이주민이 되어 사역하고 계신 고재성 홍명희선교사님께서 무직자 및 우크라이나 난민 여성들을 돌보며 다시금 유럽 재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고재성목사님은 오랜 투병 중 2025년12월3일 파아란 하늘을 바라보며 기뻐하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헤른후트에서 묻히는 첫번째 한국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지구촌 어느 곳이나 필요합니다. 동남아를 비롯하여 아시아 미주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를 향한 기도와 후원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Y**

## 아마호로!



아마호로!

사랑하는 영암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룬디 선교사 강병화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이 계절에 지면으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한국과 부룬디는 10,000km가 넘는 거리, 7시간의 시차가 있는 먼 곳이며, 직항이 없어 하루 가까이 걸려 도착하는 곳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한국의 추위가 문득 그리워지곤 합니다. 부룬디는 지금 우기를 지나고 있어서 비가 오기는 하지만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져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매년 유치원 아이들과 가족들을 초대해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고, 한국의 겨울 상상과는 정반대로, 모두가 땀을 뺄낄 흘립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 여기가 부룬디였지' 하고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희 센터가 위치한 은다바부송고 난민 정착촌은 부룬디에서도 전쟁난민과 빈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조차 힘든 곳입니다.

가난, 굶주림, 질병이 일상인 이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춤을 추며 뜨겁게 찬양하고 밤을 새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맑은 눈동자와 따뜻한 미소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곳 정착촌에서 끊임없이 일어 날 수 있도록 수년째 변함없이 기도해주시고 사랑을 흘려 보내 주신 영암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며 한해를 돌아보니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약 160명의 유치원생과 1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커가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실 건축을 마무리했고, 내년 상반기에 초등학교 3,4학년 교실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산속에 있는 부켕케리 초등학교는 5,6학년 교실을 건축하고 책걸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룬디의 미래인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임산부 하루 한 끼 사역을 통해 위생, 임신, 출산, 육아 교육을 진행하며, 출산 후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기에게 축복 기도와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지 교단 E.C.C.A.(Evangelical Church of Central Africa)와 선교단체 YWAM(예수전도단)과 활발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ECCA 교육센터와 함께 주일학교 교사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각종 세미나와 현지 목회자 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룬디 YWAM 단기선교팀이 두 차례(6월, 12월) 저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6개월간의 DTS(제

자훈련학교)를 마친 청년들(대부분 부룬디 청년)과 함께 사역할 때, 부룬디 부흥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는 23명의 의료선교팀이 저희 센터에 있는 클리닉에서 의료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개인의 시간과 재정을 부룬디 선교에 내어주셔서 의료팀은 약 1,6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셨고 함께 오신 문화사역팀은 3,0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팝콘, 사탕, 풍선 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4년 넘게 외화 부족으로 인한 유류난으로 주유소 대신 암시장에서 기름을 넣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한 분 한 분 기도해주시는 분들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랑과 기도로 이곳 부룬디와 영암교회는 늘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다 전해 드리지 못하지만, 2025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저희는 더 큰 일들을 이루실 2026년을 기대합니다.

저희 사역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오니,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영암교회는 지구촌 병방곡곡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암지에서는 선교사님들의 글을 통해 선교지의 사정과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각 선교지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난민정착촌 센터(유치원, 초등학교, 교회, 클리닉)사역 소개

- 2016년 급수사역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8년 유치원을 2개반 약 100명으로 시작. 현재 3개반 약 160명
- 2024년 9월 초등학교를 개교하여 1학년, 2학년 103명이 재학중입니다.

#### 2026년 교실증축예정

- 2020년 은혜클리닉(Centre de sante Ubuntu)이 4년간의 기다림 끝에 정식 허가를 받고 진료를 시작하여 매일 약 100여명의 환자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임산부 사역을 시작하여 약 50명의 임산부들에게 하루 한끼 식사를 제공하고 위생/출산 교육, 초음파검사 등을 지원하고 출산후, 함께 예배(아기 축복기도)드리고 선물 증정
- 2023년 컴퓨터 클럽을 시작하여 기본적인 컴퓨터 교육과 마이크로오피스 프로그램을 6개월 과정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 부반자도(Bubanza Province) 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실 짓기, 책걸상 보급, 장학사역등을 실시하고 있고,
- 학교를 방문하여 기름부족사태 이전 매주 금요일방문, 현재 비정기 방문) 비전심기 사역을 통해 복음을 나누고 학생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격려합니다.
- 학교, 교회에서 추천받은 약 100명의 장학생들과 매달 만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토론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 록 응원합니다.(매달 15kg의 쌀, 콩 등으로 격려합니다.)

#### 현지교단 협력 E.C.C.A.(Evangelical Church of Central Africa)

- 30여년전 수십만명의 목숨을 잊어간 부룬디 내전 (93~2005년) 당시 케냐로 피신을 갔다가 한국 선교사들을 만나 목회적 훈련받은 부룬디 청년이 본국에 돌아와 활동하며 발전한 교단입니다.
- 목회자 교육, 여전도회 세미나, 청소년 수련회 등에 강사로 참여/지원(후원)합니다.
- 주일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재 연구/개발, 교사 수련회 등에 참여, 지원(후원)합니다.
- 종회와 교회 건축, 지원, 목회자 지원 등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현지선교단체 협력(Congo, Burundi YWAM DTS 훈련생들 아웃리치)

- 부룬디와 콩고에서 활동하는 YM 선교단체와 협력합니다. 저희 센터를 거점으로 DTS 훈련생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아웃리치를 진행합니다. 선교센터의 저희 스텝들과 YM 아웃리치 팀이 함께 지내며 지역선교를 위해 토의하고 협력합니다.





## 소그룹 사역의 나아갈 길 대담



### 참석자

박재혁 목사, 길학철 장로(소그룹 사역 담당), 손태경 권사(소그룹 리더팀장),  
이지영 집사(3040 소그룹 리더), 한정희 안수집사(진행), 안태연 집사(영암지, 녹취 및 기록)

**한정희 :** 안녕하세요. 소그룹을 섬겨 주시는 분들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그룹 사역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 소그룹이 늘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최근에는 사역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재혁 :** 소그룹은 교회의 또 다른 프로그램이 아닌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온 본질적 사역입니다. 소그룹은 교회의 모판이고 세포조직과 같은 교회의 근간이지요. 코로나를 지나며 미국교회와 한국교회가 공통적으로 내린 연구 결과는 소그룹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

강하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소규모의 정해진 인원이 정기적으로 모여 말씀으로 삶을 나누며 기도하는 목적이 있는 모임입니다. 영암교회도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소그룹 형태의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구역 중심의 소그룹이 전통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 교회는 구역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다른 성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 구역과 소그룹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최근에는 교회내의 그룹을 기준의 교구라는 용어를 그룹으로 변경하여 대그룹, 중그룹, 소그룹으로 나누어 체계적인 사역을 가시화했다고 할 수 있지요.

**한정희** : 대그룹, 중그룹, 소그룹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길학철** :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소그룹 리더들에게는 공유된 내용입니다만 대그룹은 예배, 중그룹은 소그룹의 연합, 소그룹은 모든 소모임을 뜻합니다. 중그룹의 리더가 우리에게 익숙하던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라면 소그룹의 리더는 구역을 포함한 모든 소모임의 리더를 말합니다.

**한정희** :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교회가 예배중심의 교회,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지향한다는 것이 뚜렷해 보입니다. 중소 그룹의 형태가 서로 연계되어 발전되어 가고 있는 모습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한 소그룹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은 어떻게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길학철** : 현재 중그룹, 기존의 1~3교구 안에 구역모임이 소모임으로 자리를 잡고 4교구는 3040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발전적인 형태라 할 수 있겠고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교회에 온 새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새가족이 왔을 때는 새가족부원들의 섬김뿐 아니라 일대일 양육도 받아서 이후 소그룹으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존 교인인데 소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구역, 3040, QT모임, 남성, 여성 소모임에 들어갈 수 있으니 부목사님들이나 리더들에게 참여 의사를 밝히면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암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소그룹 모임에 참여할 수 있지요.

**한정희** : 몇 년사이에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던 것이 소모임 워크숍인데요. 훈련들에 관해 말씀해주시고 참석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자혁** : 우리 교회 소그룹 리더십을 대표해왔던 것은 일대일 양육 훈련을 받은 리더들이었습니다. 일대일 양육부에서 훈련된 리더들이 소그룹 리더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해는 예비리더 훈련이 있었지요. 16주 과정을 통해 예비리더들이 세워져서 준비된 소그룹 리더들의 층이 두꺼워졌습니다. 이지영 집사님이 예비리더 훈련 과정을 마쳤고요.

**한정희** : 이지영 집사님, 예비리더 훈련을 마친 소감을 나눠주시죠.

**이지영** : 네. 제가 예비리더 훈련을 하면서 소모임의 인원이 5~7명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소모임은 부부가 모여서 그런지 성인 11명에 아이들 11명이 모여요.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특성상 자주 모이지 못하고 한 달에 한번 모이고 있어요. 모이면 또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참석을 해요. 그러다 보면 소모임의 의미가 흐려질 때도 있지요. 그래서 예비리더 훈련을 받은 리더들이 소모임의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훈련도 매우 유익했고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 올리면서 기도문도 쓰게 되었어요. 분명히 리더로서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리더로 임명될 때까지 재교육이 계속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손태경** : 리더가 되면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리더교육이 있어요. 담임목사님께서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고 강의가 끝나면 리더들이 모여서 나눔을 해요. 저는 그 교재를 모든 성도들이 다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리더의 자격에 대해 알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모든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아요.

**박자혁** :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피터 스카지로의 저

서입니다. 리더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리더를 해도 선배들을 통해 보고 배우지 못하면 실제 리더의 역할을 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위한 교육을 매월 하고 있지요. 저는 리더들에게 ‘말.삶.기’를 하라고 권해요. 말씀나눔, 삶나눔, 기도나눔입니다. 모임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말이죠.

**한정희** : 워크샵에 참석하셨던 손태경 권사님은 어땠나요? 소그룹 리더로 오래 섬기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손태경** : 아주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서만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연결해야 하잖아요. 워크숍이 소그룹에서 연결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리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아왔어요. 많은 경험을 하면서 함께 성장했고 서로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길학철** : 올해 열린 워크숍은 다른 해와 달리 시연과정이 있었습니다. 직접 소그룹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조금 더 신앙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한정희** :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역동적으로 신앙을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올해 많이 체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지영 집사님이 리더로 임명되기까지의 재교육에 대해 말할 것에 대한 대책이랄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있을까요?

**박재혁** : 예비리더들이 리더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나도 리더가 되고 싶다, 나도 저기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점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2019년 이후 시행하지 못했던 소그룹리더 수련회(이전의 구역장수련회)를 제주에서 1박

2일로 시행하고자 당회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소그룹 리더의 분명한 소명과 헌신이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그룹을 섬기고 있는 리더들만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함께 가시고 싶으시면 하루빨리 소그룹 리더가 되시면 됩니다. (웃음) 앞으로도 소그룹이 더욱 교회 안에 안착하도록 계속 리더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며 교회의 기초가 되는 소중한 리더십으로 세워주며 세부적인 계획들을 실행할 방침입니다.

**한정희** :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소그룹 활동을 통해 활기차게 발전해나가는 영암교회의 모습이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Y**

---

지난 한 해 동안 소그룹을 위해 섬겨 주신 리더분들을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소그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그룹을 통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영암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소그룹을 섬겨 주실 예비리더를 환영합니다. 영암교회 소그룹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두드려주세요.

## 중고청 찬양의 밤 행사 화보 모음





# 신앙의 방향을 다시 잡는 나침반 같은 시간



영유아부  
조도현 집사

안녕하세요, 저는 영유아부에 다니는 조이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두 아들 쌍둥이의 아빠 조도현입니다.

까까머리 시절부터 오늘까지 매주 영유아부에 이서와 함께해온 시간을 뒤돌아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시간이 흘러 이제는 날아다니는 이서를 보며 요즘 제 인생의 가장 큰 찬양 중 하나는 이서가 “혼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요~”입니다. 아멘이죠?

이번 성경학교는 이서와 저에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만들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이서도 너무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서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하기 몇 주 전부터 몇 밤을 자야 성경학교를 가냐고 물어볼 만큼 이서에게 소중한 ‘물놀이’도 빠지지 않았답니다.

성경학교를 다녀온 후에 티니 핑 노래만 부르던 이서가 찬양도 부르고,

“예수님은 내 친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며… ‘아, 이게 바로 씨앗이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제 안에 있는 인내심과 욕심, 조급함 같은 부정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삶에 치이고 육아에 치여 지칠 때 혼자 기도를 드릴 때면 마치 하나님께서

“아직 이 부분은 못 내려놨구나!”라고 응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서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되뇌곤 합니다.

“이건 훈련이고 나는 지금 거룩해지고 있어”라고 말이죠.

제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 이서도… 아주 완벽하게 복사기처럼 저의 행동과 말을 따라 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보여줘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감동도 잠시… 며칠 후에 어김없이 이서와 실랑이를 하다가 이서가 갑자기 저한테 “아빠는 왜 화내? 예수님은 안 그리잖아.”라며 소리치는데.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한동안 명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성경학교가 이서에게 너무 좋은 영향을 줬는데 내가 더 성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본이 되고 있나?’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듯이, 저도 이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시고, 실수할 때마다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서가 한번 떼를 써도 벼락 화를 내곤 했던 게 생각이나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우리 이서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며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이서를 이렇게 더 많이 사랑으로 대해줘야겠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서가 찬양을 집에서 불러줄 때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이서가 자기와 같이 노래하며 힘을 내자며 성경학교에서 부른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아이에게도 큰 축복이었지만,

저에겐 신앙의 방향을 다시 잡는 나침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경험한 성경학교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부모로 서는 것 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늘 애쓰시는 모든 부모님과 영암교회 모든 교사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Y**

##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사



초등1부  
박나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1부 3학년 박나엘입니다.

이번 초등 1부 성경학교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사>였습니다. 이 주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구를 소중히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분리 수거를 잘하고, 물을 아껴 쓰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전날부터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는 비옷과 장화를 신고 완전 무장을 하고 뛰놀숲 학교에서 숲체험도 하고 물놀이도 했습니다. 신나게 뛰어노는 동안 다행히 비는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뛰놀숲학교에서 과일과 채소를 직접 따고, 집라인도 타며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자연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정원사’로 임명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게임도 하며 친구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성경학교를 마무리 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과 목사님, 선생님 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Y**



# 오늘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초등2부  
안채연

나에게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남들보다는 조금 더 특별했던 것 같다. 정들었던 초등2부에서 마지막 성경학교였기 때문이다.

‘오늘, 창조세계’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했고 팀비전센터라는 곳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과연 내가 이곳에서 2박 3일을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다.

처음으로 한 활동은 지정된 반 친구들과 주제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처음 만난 친구들이라 살짝 어색하기도 했지만, 주제 활동을 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씩 친해진 것 같다. 처음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일을 놀라워하는 예배였는데, 한동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다음으로 이어진 레크리에이션에서는 서로 경쟁하며 반 친구들과 협동심을 키우는 시간을 보냈다. 이튿날에는 QT와 체조로 아침을 시작했는데,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물놀이 시간에는 시원한 물로 열을 식히고 물총 싸움을 하며 정말 많이 웃었던 것 같다. 그 외에 성경을 통독하는 ‘읽고 깨닫고’ 시간이랑 코너학습도 기억에 뚜렷하게 남는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튿날 저녁 예배 시간이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너무 함부로 했다는 것에 대해 회개했는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말이 마음을 울렸던 것 같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 속도 보다는 방향



고등부 1학년  
이고우

이번 여름 수련회는 제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바쁘게 살아가며 신앙생활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했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되돌아볼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말씀과 경험을 통해,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첫째 날, 레크리에이션과 맛있는 음식, 예배 시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특히 설교 중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시고 은혜로 품어주신다”는 말씀이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품어주십니다.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고, 그 은혜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로 삼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신앙 생활에서 속도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더 빠르게 달려가면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속도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확고히 잡고,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둘째 날, 몸이 조금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자,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를 들으며, 각자의 신앙 생활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고3 오빠인 남궁솔의 신앙 이야기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이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며 저도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로역정 체험을 통해 믿음의 길에서 언제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유혹의 방에서 넘어갔을 때, 스스로의 약함을 절실히 느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은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겠다는 큰 교훈이 되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혼들리지 않도록 더욱 강한 신앙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셋째 날,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에 빠뜨리고 슬라이드를 타고 보트를 타며 웃음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순간들은 정말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즐겁고 기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모든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확실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쓸 것입니다. 또한, 나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Y**



## 함께 부르신 하나님, 함께 걷는 공동체



청년부 박성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온 경험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렇게 간증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청년 공동체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는 3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는 함께 교회에 모여 찬양집회를 드렸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찬양을 좋아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양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과 기쁨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봉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봉사를 위해 방문한 곳은 연곡 소망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영암전도대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삼계탕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와 뒷정리 까지 함께하며 단순히 음식을 차려드린다기보다,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실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와 고맙다는 말씀을 들으며 저 역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수사진을 찍어드린 후 손 마사지를 해드리는 봉사도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이 어르신들의 머리를 다듬어드리고, 화장도 도와드리며 단장을 해드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어드릴 때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봉사를 통해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섬김은 거창하지 않아도 되며, 작은 손길과 정성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봉사가 끝난 후에는 청년부가 함께 근처 글램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쉼의 시간도 가지고, 계곡에서 함께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바비큐를 함께 구워 먹으며 웃음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깊이 기억에 남은 시간은 ‘나눔 카드’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순간입니다. 평소에는 주일 예배 전후로 짧게 인사하는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신앙의 고민과 진로에 대한 불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마음들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의 체험’입니다. 찬양 가운데, 봉사 가운데, 나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공동체의 소중함’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청년부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이 섬기며 함께 성장하는 청년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를 더욱 단단하게 세워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



## 본당 리모델링에 즐음하여…



조규완 장로

한국전쟁으로 민족 상잔의 포연이 채 가시지 못한 1954년 11월 14일, 송인동 김창걸장로 님 자택에서 7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림으로 영암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올해로 창립 71주년을 맞아 앞으로 30년을 내다

보며 100주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성전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보니 그 마음과 느낌이 감개무량함을 넘어 차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흙 없이 개축해야 한다는 그 중압감은 또 다른 책임감으로 모두의 열정과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게 합니다.

작년 하반기 본당 리모델링 위원회가 당회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영암교회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과 후원속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디자인 설계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그 가운데 성도님들께 디자인 윤곽을 지난달 10월 19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전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시간에 공유 드리면서 마침내 그 위용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성전 신/증개축을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는 본관(본당 1~3층) 건물은 제3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임옥목사님 계실 때인 1979년도에 신축/완공이 되었고 그 옆에 있는 드림센터(교육관)는 향후 미래를 내다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처소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1986년에 신축을 하였으며 이후 2018년도에 한번 더 리모델링을 거쳐 지금의 드림센터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본관(본당)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의견도 있었으나 교회자금 여력상 본당의 전반적인 리모델링은 어렵다는 결론 하에 냉난방등 공조시설의 부분적인 보수 등을 하였고 2023년도 1층~3층의 화장실을 전반적으로 보수하였던 것이 본당의 마지막 보수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본당 노후화 및 미래를 위한 환경조성, 예배공간의 현대화, 미래지향적인 앞서가는 교회를 위해 본당 리모델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되었고 때마침 고 김난경권사님께서 교회에 기증하셨던 둔촌동 아파트가 원만히 매각되면서 본당 리모델링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되어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는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때마다 요소마다 적절하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순간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본당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크게 2 가지를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본당 리모델링이지만 확장 개념에서 본당과 그 이미지를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1층~3층 계단 및 로비까지 리모델링 범위에 포함하기로 하였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 영암교회의 Identity라고 할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의 정서와 교감에 크게 자리잡고 있었던 본당 전면의 모자이크(그림 1)와 좌우 벽체의 부조 조형물(그림 2)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층~3층까지의 로비 부분을 확장 개념으로 리모델링에 포함하게 된 것은 그동안 로비 공간은 방열처리가 안되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냉난방시설 또한 열악하여 거의 사공간으로 쓰임새가 업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리모델링을 통하여 방열



(그림 1) 전면 모자이크



(그림 2) 좌우 부조 조형물

처리와 아울러 냉난방시설의 개선 그리고 조명등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전체적으로 밝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삼삼오오 소그룹 모임이나 개별모임을 편안하게 갖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와 유사한 공간활용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 및 가구 등을 포함한 디자인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층 로비는 그동안 좁고 불편하여 그래서 교회행사나 외부 인사들의 방문 등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도어출입구 및 공간 등 많은 부분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신입교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새가족부 활동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당 내부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전면 모자이크와 좌우측 부조 조형물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은 전면 리모델링 된다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면 단상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어둡고 차가운 분위기였던 석조부분과 조명등을 대폭 개선하여 모래색의 따뜻하고 온화한 공간분위기를 만들어 온전히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동안 전면 부위를 막아서 답답하고 좁은 인상을 주었던 양쪽 라운드 타입의 벽돌 기둥체는 제거 후, 전체적으

로 타원형으로 재설계하여 넓고 여유로운 공간분위기를 주면서 단상에서 볼 때 본당 전체를 감싸주는 듯한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면 전동스크린이나 플래카드를 이용한 양쪽 광고/홍보 방법을 벗어나 LED 전광판을 새롭게 적용하여 간결하면서도 산뜻한 시각영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쪽 벽체는 그동안 방음, 방열이 안되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덥고 추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문을 폐쇄하여 단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간결하고 산뜻한 디자인을 추구하였고 창문폐쇄에 따른 환기는 Hidden된 창문 일부와 현대화된 환기 시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장부분의 냉난방공조시설 역시 현대화하여 불균형한 좌석 온도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였고 전체적으로 조명 및 조도를 개선하여 본당 내부 전체를 밝고 환하면서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내어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며 몰입할 수 있는 예배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당 후면도 스크린 대신에 LED 전광판을 눈높이에 맞춰 간결하게 처리하며 부분적 개선을 통해 본당 내부 전체에 호환되는 동일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림 1)

지금까지 본당 리모델링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1954년 창립이래 여러 번의 증개축 및 신축을 통하여 지금까지 영암교회가 든든히 반석위에 세워져 아버지하나님의 영광과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은 온전히 아버지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한번 영암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림 3) 본당 내부



(그림 3-1) 본당 후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은혜롭게 꾸밈에 있어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합심으로 늘 기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 앞으로 100주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모습으로 영암교회가 다시한번 태어난다면 다음세대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고 동시에 새로운 선교적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더 귀히 쓰임 받는 우리 영암교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설계업체를 통한 설계가 끝나면 설비업체나 철거업체, 시공업체 그리고 음향영상업체 등 필요일정에 따라 연이어 추가 공사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 기간동안 일정 부분 성도님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철거하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많은 분진과 소음 등으로 본당 예배가 불가하여 인근 대광 중고등학교 강당을 한두달간 빌려서 임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불편함이 없도록 교회 셔틀 운영 및 편의와 아울러 예배준비에도 전혀 소홀함이 없도록 교역자, 당회 및 각 부서에서 서로 협력하여 만반의 계획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계획은 저희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는 온전히 아버지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속에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암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 여러분. 끝까지 본당 리모델링에 대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때마다 기도로 동역하시되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Y**

#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동규 성도

처음 교회라는 곳을 접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시절 내가 살던 고향에서 2km 가량 떨어진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따라 친구들과 함께 가서 빵과 사탕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몇 번 교회 앞을 지나갔지만, 선뜻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되어 아내를 만나 함께 손잡고 가끔 주일에는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참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직장 생활 등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는 애들과 교회에 나갔지만 저는 교회 앞까지만 가고 나중에 간다고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명예와 직장에서의 출세만 생각하면서 걸어왔었던 지난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암교회 앞에서 아내를 기다리던 중 아내와 영암교회 박인옥, 오성희, 박은지 집사님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새가족부에도 등록하여 새신자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대일 양육, 소그룹 활동, 2남전도회 활동과 세례까지 받고 아내와 함께 주일이면 즐거운 맘으로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 식탁 앞 액자속에 있는 말씀 시편 18장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를 보면서 예수님의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커가는 것을 확신하게 되며 또 주일 교회에 가거나 시외로 나가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 할 때는 차 안에서 아내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함께 들으니 성령이 충만해지고 믿음도 점점 더 깊어집니다

앞으로는 아내의 평생소원인 가족이 함께 주일이면 교회에 가고 또 아내가 결혼 전에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던 그 시절처럼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나 또한 기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면서 남은 여정 살아가고자 합니다. **Y**

## 사랑하는 여러분~운!



김관식 안수집사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계절의 기록: 꺽이지 않는 믿음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자)

늦가을의 정취가 깊어지던 11월, 우리에게는 한 해의 영적 결실을 풍성하게 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어진 부흥사경회였습니다. 이 며칠간의 여정은 단순히 일정을 채우는 것을 넘어, 5번의 강해, 5번의 회개, 그리고 5번의 깊은 감동이 우리 심령에 새겨진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부흥사경회가 11월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었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특히 강사로 서신 화종부 목사님의 열정적인 말씀 설교는 그 자체로 은혜였습니다. 5차례 모두 한 시간이 넘는 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찬 내용 전달 덕분에 정말 지루할 틈 없이 즐거운 사경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900여 명으로 집계된 희귀 성씨 중의 성씨라 하여 더욱 눈에 띠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특별했던 것은 강해의 주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난해하게 여겨지던 요한계시록이었기에 더욱 독특했습니다.

사실,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저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이 난해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강해를 듣는 순간, 오히려 저의 무지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목사님은 계시록의 말씀을 정말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강해에서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사이에 등장하

는 7개의 교회 중 5개의 교회를 다루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구분을 칭찬과 꾸중을 모두 받은 1개 교회와, 칭찬만 받은 2개 교회, 꾸중만 받은 2개 교회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유효한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가꾸어 나가는가에 대한 것 이었기에, 저는 아주 주의 깊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이 되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하지만 문득, 저는 그 머리와 몸을 혹시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안목을 채우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기관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다섯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꾸중은 시대를 넘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날카로운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 교회는 창립 71주년을 맞이하여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배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문득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그런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외적인 환경의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신앙의 변화이며, 더욱 뜨겁게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일 것입니다.

설교 중, 목사님께서 불쑥 던지신 한 마디는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한번 할까요?” 저는 이 권면이 아마도 5번의 감동 중의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서 말하는 ‘기도 한 번’의 그 한 번은 숫자적인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이루어져야 할 기도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예전 부흥회라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보조의자까지 놓고 예배를 드리던 뜨거운 시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절만을 그리워하며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꼳대의 반열에 드는 것 일 것입니다. 아, 저는 꼳대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무선으로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것도 이제는 일상 다반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각적이며 집중적, 분산적인 업무가 많아졌기에, 우리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야간 근무 사이에도, 병원 입원 중에서도, 먼 거리 가정에서도 충분히 우리의 뜨거운 믿음과 말씀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형태나 장소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꺾이지 않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넘어서는 우리 믿음의 뜨거움을 증명하는 척도라 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과 믿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교회에 대한, 특히 우리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과 말씀의 본질을 지켜나가려는 올곧은 마음과 자세를 높이 존경하며 배우도록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것이 없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오래 참

음이 필요하고, 끝없는 기다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오래 참음과 기다림을 배우고 실천하며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모자란 저에게 이번 사경회는 너무도 값진 교회사랑과 교회의 가치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주신 가르침을 오래오래 간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한번 할까요? 그 감동을 기억하며 함께 외쳐봅니다.

네~~~(아멘) **Y**

## 찬양한마당 화보 모음





#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과정을 마치면서...



김남영 명예권사

먼저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유난히 무덥고 길었던 2025년의 여름을 이기고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과정]을 은혜중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6주 교육과정을 통해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50여년 전 결혼하면서 어머님과 남편의 교회인 영암교회가 저에게 좋은 영적 올타리가 되었습니다.

임옥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유아세례를 받은 두 아들과 함께 온 가족이 영암교회에서 믿음의 바탕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간 교회를 떠났다가 30년 만에 다시 믿음의 고향인 영암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다해 반갑게 맞아 주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셔서 낯설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공동체의 사랑과 배려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고향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고, 또 미션스쿨에 재학했던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세월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 [동반자과정]을 통해 타성에 젖었던 저를 깨우시고 나이듦과 연륜만으로 게으르고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대일 동반자과정이 부담감으로 다가와 선뜻 결단하기가 어려웠지만 더 늦기 전에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믿음의 자세를 다시 정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지금은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일대일 동반자 16주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굳게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매 주 양육과정이 거듭될수록 양육자와의 신뢰와 공감대가 깊게 쌓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동반자과정을 마치면서 다짐해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성도로서 영암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으며 겸손한 주님의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흥윤권사님께 사랑과 존경을 전합니다. **Y**

# 일대일 제자훈련



이동진 안수집사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를 같이 하자고 김옹태 장로님이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 올해 초였다. 올 한 해는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맡게 되고 봉사하게 되어서 사실 평일에도 시간을 내어 성경공부를 하는 게 상당한 마음의 부담이 되었다. 생업과 여러 사회 활동 일정이 많아서 많이 바쁘고 등등... 미루고 미루다가 8월의 더위가 끝날 무렵 장로님의 계속된 권유로 결국 9월부터 시작을 하기로 답을 드리게 되었다.

첫번째 예수님에 관하여, 두번째 큐티의 이론과 실제, 세번째로는 열 번의 교과 과정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 사역하는 삶 등 열 가지 단계별 공부를 하였다. 이렇게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하면서 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중등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인으로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이제 까지의 평범했던 삶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고 진정한 신앙인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막연히 알고 있었던 신앙인의 삶과 믿음 생활이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누구나 여행을 다녀 본 기억들이 있을 텐데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도 나름의 호기심과 기대를 통해 얻는 맛과 경험의 있기는 하지만, 철저한 준비를 하여 알고 떠나는 여행을 해 보면 더 많은 것이 또렷하게 더 자세히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는 나에게 정말로 그동안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새롭게 눈을 뜨고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3개월의 성경공부 시간은 나에게는 세상 어떤 약속 보다 기다려 지고 정말 좋고 귀중한 시간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권하고 싶다. 아니, 강권하고 싶다.

일대일 성경공부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내 삶을 더욱 새롭게 하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랜 시간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고 가르쳐 주신 장로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Y**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 23]

# 낯선 방문객이 교회 가족으로 정착할 때까지



윤한결 안수집사

주일 예배 시간, 영암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잠시 걸음을 늦추게 됩니다. 예배당이 어디인지 두리번거리며 안내 표지를 살피기도 하고, 안내 봉사를 맡은 분에게 조심스럽게 묻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낯선 공간에서 예배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같이 온 지인 곁을 꼭 붙잡고 앉아 계시기도 합니다. 그 모습들에는 기대와 어색함이 섞여 있고, 환영 받고 싶다는 마음과 괜히 눈에 띄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 새가족부는 새가족분들의 이 낯설고 어색한 첫느낌이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도 되겠구나"라는 안도의 순간이 바뀔 수 있도록 돋고 있습니다.

새가족분들이 영암교회를 찾아오시게 된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대부분 비슷한 질문으로 모입니다. "곧한 내 마음과 지친 몸이, 이곳에서는 조금이라도 쉼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첫 걸음을 옮깁니다. 예배 영상을 통해 유상진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접하고 등록을 결심하기도 하고 병상에서, 혹은 이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새로운 신앙공동체를 찾게 되어 영암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오랜 기도와 설득 끝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준 누군가의 사랑이 결국 하나님 앞으로 이끈 것입니다. 또 자녀들의 같은 학교 학부형, 지인, 혹은 노방전도를 통한 초대를 계기로 영암교회를 처음 알게 되어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만남과 한 번의 초대

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길로 걸어온 분들이지만, 새가족 부원들은 새가족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이미 앞서 일하고 계신 경험을 공유합니다.

주일 아침 새가족부의 사역은 이를 아침 새가족부 실 청소와 8시20분 짧은 경건회로 시작됩니다. 경건 회에서 말씀과 기도는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 가족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주세요'인 내용이 초점입니다.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등록 하기로 결심하시면, 새가족부와 첫 만남은 안내 데스크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맛있는 커피와 차, 간식을 내어드리고, 환영카드를 함께 작성 하며 간단히 교회를 소개합니다. 새가족분과 가장 잘 어울릴 헬퍼를 정해 드리는데, 이 헬퍼는 이후 새가족의 교회 정착을 돋는 동행자가 됩니다.

그 다음주에는 새가족부 담당 목사님과의 면담이 이어집니다. 어떤 마음과 사정으로 영암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교회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자연스럽게 쌓아 갑니다. 세 번째 주부터 여섯 번째 주까지는 헬퍼가 매주 새가족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신앙의 상태와 삶의 상황에 따라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소개합니다. 일곱 번째 주에는 새가족부 장로님이 새가족을 모시고 교회 스페셜 투어를 진행합니다. 예배당과 사무실과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며 앞으로 함께할 영암교회의 삶을 좀 더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주 예배시간에는 새가족분을 소개하며 교회, 영암교회 정식 등록교인으로 새가족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후 새가족이 속하게 될 지단체와 소그룹 리더를 소개하고, 일대일 양육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네 차례 정도, 이 과정을 거쳐 등록하신 새가족 분들을 모시고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오찬의 자리 를 마련합니다. 식탁을 함께 나누며 정착하고 있는 교회생활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이 시간은 새가족분들이 이제 '영암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영암교회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새가족부 사역은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년

간(2024-2025년), 새가족부를 통해 새가족 방문카드를 작성하신 분은 총 96분이었고, 그중 80분이 새가족부 6주 과정을 성실히 마치고 정식 등록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새가족부원들은 매 주일 섬김의 시간 뿐 아니라, 알차기로 소문난 수련회를 통해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충전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가족부 나눔 교제를 같이 연구하고 훈련받고, 신나게 교제하면서 회복되는 수련회 시간 또한 사역의 일부입니다. 새가족부원들의 소망은 새가족분들이 큰 결심을 하고 등록을 결심한 영암교회를 그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들 또 다른 새가족을 향해 섬김의 자리에 함께 서는 날을 기대합니다. 저희 새가족뿐 아니라 우리 영암교회 모든 식구들이 예배 중 처음 오신 분을 만나시게 되면, 따뜻한 인사 한마디와 미소로 함께 새가족부로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환영이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



## 화요형제와 잘 박힌 못들



강소영 권사

내가 본격적으로 화요형제팀으로 있게 된 것은 2014년 예배 피아노 반주를 맡게 되면서부터이다. 2000년대 초반에 잠깐 설거지를 하러 왔다가 한참을 멀리하다가, 2014년에 다시 화요형제로 복귀하였다. 지금은 화요형제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팀 회계를 맡고 있으며, 큰설거지(대형 솔단지 및 음식물 쓰레기 국물통, 단순히 크기 때문에 내가 붙인 이름이다)와 바닥 청소를 맡고 있다. 그리고 주로 식사 기도를 담당한다.

### 시절이 변했다.

1997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을 때는 200명 정도의 화요형제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였다. 2010년대 중반이 되면서 100명 이하로 그 수가 줄어들더니, 코로나 이후에는 평균 40~50명 정도로 줄었다(그래도 복날이나 성탄절 즈음에는 여전히 숫자가 는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은 오히려 숫자가 늘었었는데,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해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제공할 수 없어 교회 주차장에서 김밥과 일회용기 라면을 나눠주다 보니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오시는 바람에 그 숫자가 늘기도 했었다.

### 시절이 변했다.

‘화요형제’라 하면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직장과 가정을 잊고 정말로 배를 끓어야 했던 이들, 노숙자들, 어떠한 이유에서든 한시적으로 밥 한 끼 값을 줄여야 했던 이들이었다. 지금은 노숙자들은 거의 없

어 보인다. 독거노인들, 쪽방촌에 거주하는 이들, 역시 밥 한 끼 값을 아끼려는 이들이다. 이들 중 코로나 팬데믹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꽤 계시다고 들었다.

### 시절이 변했다.

화요일에 모여 예배드리고, 점심을 먹고, 이미용 섬김을 받거나, 1층 남자 화장실에 딸린 샤워실에서 간단하게 씻고 우리 교회에서 마련한 세탁기에 더러워진 옷을 세탁해 가거나, 수지침을 맞거나 혹은 간단한 감기약을 받아 가던 시절은 이제 없다. 교회 방침도 변했고, 코로나 팬데믹이 바꿔놓았으며, 그때 재능 기부를 하시던 분들도 돌아가시거나 연세가 많아 더 이상 재능 기부를 하실 수 없게 되었고, 이런저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은 더 이상 기부에 관심이 없어졌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지원하는 영역을 늘렸고, 예전보다는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실제 화요형제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 시절이 변했다.

봉사자들도 줄었고, 성도들의 관심은 더 줄었다. 먹고 살기 어려우니 일을 해야 하고, 주일 봉사도 어려운데 직장에 매여 있으면서 주중 하루를 내어 봉사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마음과 뜻,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가끔 잊는 것 같다.

### 시절이 변했다.

그래서 메뉴도 변했다. 100~200명 정도의 형제들(자매들도 있으나 그 수가 아주 적다)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던 1997~2000년대 초반까지는 돼지김치찌

개와 콩나물무침, 구운 김과 김치라는 메뉴가 변할 수가 없었다. 한정된 예산으로 가능한 많은 이들을 먹여야 했으니. 그리고 변할 수 없는 이 메뉴는 코로나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금은 팀장 이신 김종숙 권사님의 고심하에 돼지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가끔 육개장, 떡국 등과 더불어 여러 종류의 반찬을 시도해 왔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다. 다양한 메뉴를 한정된 예산 아래에서 시도해 온 또 다른 이유는 매주 화요일 안암동 내 독거노인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해 전달하기 때문이다.

### 시절은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코로나 팬데믹 초반, 대구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었다. 예수 믿는 우리라고 다르지 않았다. 2020년 2월 말, 화요 형제 스태프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요형제 점심 공제 중단 여부’를 놓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단해야 한다’, ‘아니다 어려운 때니 더욱 중단해서는 안 된다’, ‘잘 모르겠다’로 의견이 갈렸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마 14:16) 하셨고, “영문 밖으로”(히 13:13)라 하셨다. 그래서 교회 건물 밖인 야외 주차장에서 김밥과 일회용기 라면을 나누어 주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게 매주 5명 이하로 순번을 정해 나와 나눠 주며, 코로나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연령대의 스태프들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단 한 주도 빠짐없이 화요형제들에게 점심을 제공했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항상 가난한 이웃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주님은 늘 낮은 곳에 계셨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주님을 잘 알고 있는 화요형제 스태프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주님께 단단히 박혀 있고, 화요형제팀에 잘 박혀 있다. 잘 박힌 못에 주님께서는 무엇이든 걸어 두신다. 팀장인 김종숙 권사를 비롯해 배동화 권사, 심상옥 권사, 방정수 집사, 박영자 권사, 김수연

권사, 이진숙 집사, 김경아 집사, 기노창 집사, 박희경 권사, 이경선 권사, 노은진 집사, 김정숙 집사, 유미영 집사, 양미숙 집사, 김주은 권사, 이경숙 집사, 누가 빠졌나… 아, 고영옥 집사님. (혹시 이름을 빼먹었거나 순서가 엉망이어도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내 기억력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다. 섭섭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와주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예전에는 봉사하셨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잠시 떠나 있는 분들…

글 첫머리에 화요형제팀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했는데, 이들은 그럼 무얼 하는가? 이들은 아침 일찍 나와 재료 손질부터 썰고, 볶고, 끓이고, 지지고, 테이블 세팅을 하고, 일일이 밥과 국, 반찬을 나르고, 자리 정돈을 하고, 치우고, 닦고, 화요형제들과 팀원들, 화요전도대의 식기 설거지, 그리고 바닥과 벽 청소, 행주를 뺏아 삶아 너는 일을 담당한다. 한 겨울에도 ‘덥다, 더워’를 연발하며 봉사하는 이들이다. 한여름에는 에어컨이 기를 못 펼 정도로 속옷까지 땀으로 흠뻑 적시며 봉사하는 이들은 잘 박힌 못들이다.

### 시절이 변한다.

화요형제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사역도 변할 수 있다. 중단되거나 없어지거나, 확장되거나, 다른 형식으로 바뀌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향하기를 원하신다. **Y**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 15:11)

## 「교사로, 또 교사로」

### 두 자리에서 만나는 영암의 아이들

스무 살 무렵, “제 직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라고 담담하고도 당당하게 말하던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아직 직업을 갖지 않았던 나에게 그 한마디는 유난히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주일학교 교사’를 자신의 직업이라 말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그 질문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주일학교 교사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마음을 천천히 바꾸어 놓았다.

지금의 나는 평일에는 영암유치원 교사로, 주일에는 영암교회 유치부 주일학교 교사로 두 자리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하루하루가 쉽지만은 않고, 때로는 체력적으로 벼거울 때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경험한다. 유치부에서 맡은 역할이 크거나 대단하지는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쁨으로 찾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벅차다.

영암유치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문득 아이들의 삶 자체가 예배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 넘어진 친구 곁에 조용히 앉아 등을 토닥여 주는 순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작은 목소리 속에서 나는 종종 ‘아, 이 아이들은 이미 예배를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 그럴 때면 교사로서의 역할이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아이들 안에 심어 두신 귀한 마음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돌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듈다.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배 후 이어지는 오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도,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의 생일을 떠올리며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순간도

나에게는 모두 기쁨의 시간이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섬김’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삶의 태도임을 배운다.

무엇보다 유치부 목사님을 비롯해 한 분, 한 분의 선생님들을 통해 나는 많은 배움을 얻는다. 말보다 삶으로, 수고보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으시는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며 나 역시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된다. 특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율동을 준비하는 시간, 무릎이 아프다 말씀하시면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아이들 곁에 서 주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 깊이 도전이 된다. 이 세상에 당연한 헌신은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매주 변함없이 주일을 내어 아이들을 위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선생님들을 볼 때면 저절로 숙연해진다.

유치부 교사로서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도 있다. 예배 후 2부 활동인 게임 시간에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부장 권사님께서 “이건 모아서 책으로 내도 되겠다”라며 웃음 섞인 칭찬을 해주실 때면 곁으로는 웃으며 넘기지만 마음 한편에는 큰격려로 남는다. 아이들이 예배가 끝난 뒤에도 게임 시간을 기다리며 설레는 표정을 지을 때면, 그 웃음 속에 예배의 기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어 더 정성껏 섬기고 싶다는 다짐을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 유치원에서 유치부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자라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 다시 나를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다. “선생님, 기도 부탁드려요.” 수능을 앞두고 조심스럽게 건네는 그 한마디에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던 어린 날의 얼굴이 겹쳐 보인다. 또 어떤 아이는 군대를 가기 전, 잠시 들렸다며 인

사를 건넨다. 원장님과 그 아이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며 ‘아, 이 아이의 인생의 한 부분에 내가 교사로 함께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밀려온다.

또 한 아이를 위해 원장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그 아이가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함께 바랐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가 예배에 나왔어요”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한 아이를 향한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다.

영암유치원 교사로서의 자리 또한 나에게는 큰 축복이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따뜻한 원장님,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선생님들과 하루하루를 함께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한 마음을 품는다. 유치원과 교회, 두 공간에서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

보며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이자 소명이다.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지만, 돌아보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다시 세워가고 계심을 고백하게 된다. 유치원과 교회, 두 자리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며 오늘도 주신 자리에서 성실히 섬기는 교사로 살아가고 싶다.

이 모든 시간이 혼자가 아닌 영암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능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삶으로 예배하는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늘 건강하여, 주일 아침에도, 평일 아침에도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마음 깊이 바래본다. **Y**

- 김주선 교사



## 영암유치원 가족



영암유치원 학부모

영암교회 유치원에 세 명의 아이를 보내면서 저는 부모로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이를 맡길 때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잘 적응 할 수 있을지 또 안전하고 따뜻한 장소인지 부모로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걱정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해주신 복된 공간임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실에서부터 복도 놀이터까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밝은 에너지가 항상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때마다 단순히 보육의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적 정서적 성장을 돋는 신앙의 배움터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암교회 유치원 원장선생님과 교사 분들의 사랑과 섬김 역시 매우 깊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할 뿐 아니라 각 아이의 성격과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며 따뜻하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아이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고 잘한 일이 있을 때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아 이곳

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현장이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감사했던 부분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아이들의 인격과 마음을 세우는 교육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도하는 법, 감사하는 마음, 친구를 배려하는 태도 등 신앙의 인성의 본질을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부모로서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작은 사건과 활동마다 아이들은 새로운 배움과 감동을 경험했고 집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는 항상 선생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모습 속에서 늘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이 한 명 한 명을 품어 주시는 현신, 잔잔하지만 깊은 미소, 그리고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자체로 복음의 향기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 조차도 잊고 지나가는 중요한 가치들을 유치원에서는 매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고 가르치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암유치원이 아이들에게 믿음과 행복의 터전이 되어 주기를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숨 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는 소중한 공동체, 승기 승아 승민이가 느꼈던 사랑과 감사와 감동을 다시 떠올리며, 최고의 유치원 영암유치원이 앞으로도 더 많은 가정에게 같은 은혜와 행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영암유치원 파이팅 \*^^\* Y

# 갈비탕 만찬의 은혜도 함께

## 조찬기도회 조찬섬김

언제부터인가 영암교회에는 매월 첫주 토요일마다 엄청나게 맛있는 갈비탕이 무료로 제공되는 이벤트가 열립니다. 매월초 남선교회 조찬기도회가 끝나면 어김없이 제공되는 아침식사입니다. 며칠 전부터 얼굴 없는 손길들의 정성으로 준비된 갈비탕은 그 정성 만큼이나 맛도 일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갈비탕 먹고 싶어서 조찬기도회에 참석한다는 남선교회 회원님들도 심심치 않게 많으시다고 합니다. 조찬기도회의 활성화에 무엇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섬겨 주시는 분들의 수고로 갈비탕은 어느 덧 매월 첫번째 토요일이면 100명에 가까운 분들이 함께 즐기는 영암교회의 명물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제 그 맛있는 갈비탕의 준비를 지휘하고 계신 권영주 안수집사님께 갈비탕 봉사의 소개말씀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Y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남선교회 조찬기도회 모임이 다시 시작될 즈음 제가 마침 현직에서 은퇴하고 휴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남선교회 회원들이 식사를 하는데 무언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를 새벽부터 기도회에 나온 회원들에게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남선교회 회원이 갈비를 제공할 터이니 갈비탕을 한번 준비해 보라고 하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김상근 집사님, 김동호 집사님, 손태경 권사님, 성외경 권사님, 박희경 권사님, 최미경 집사님 등의 도움을 받아 함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선교회들이 매월 첫 토요일 새벽이면 뜨거운 기도와 찬송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롭고도 감사한 만찬 시간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차 걱정은 마시고 편안한 예배를~



차량부 소개

교회 공동체에는 뒤에서 조용히 굳은 일을 맡아서 해주시는 여러 모임이 있지만 이제까지 참으로 오랫동안 봉사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봉사를 해 주실 분들로 차량부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간 정말 많은 분들이 차량부에서 수고를 해 주셨지만 지금은 조규완 장로님을 필두로 김태균, 전창배, 한만국, 최재억, 김화영, 임병기, 유정곤, 이현철 안수집사님과 전성하, 이경훈 집사님, 김국형 성도님 등 정말 많은 분들께서 주차장과 차량을 관리하는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분들은 1부예배 전부터 시작해서 3부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이 한산해질 때까지 교회에 예배가 있는 날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교대로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차량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에는 이 분들의 수고가 항상 있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자원해주시는 인원들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거나 특히 예배가 마

치는 시간이 되면 무척 분주해지는데, 한 분은 주변을 봐주시고 한 분이 차량을 이동해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2인 1조로 움직이려면 최소한 4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다른 교회들의 경우에는 이런 발렛 서비스를 절대 안 하고 본인 차량은 본인만 운전을 하는 곳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 차량부는 정에 못 이겨서 아직도 차량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차량부 봉사에 자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 피의 수혈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차량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새가족부 지정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와 함께 어르신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교회 앞 주차장의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시네요.

오늘도 묵묵히 차량부를 지켜 주시는 많은 봉사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Y**

# 하늘에 별이 된 원영이를 기억하며

2023년 6월부터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시작은 원영이가 기침을 하며 “가슴이 조금 아프다”는 말과 함께 받은 가벼운 건강검진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날의 검사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날, 원영이는 일하고 있는 제 곁으로 머뭇거리며 다가와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암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을 치는 절망감에 저는 하염 없이 눈물만 흘리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아니고 너야… 엄마는 그래도 너보다 살 만큼 살았는데…” 그 때 원영이는 붉어진 눈으로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엄마가 아니고 내가 암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어 보이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무척이나 가엾고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원영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우린 이겨낼 수 있어. 힘내자.” 엄마로서 이 말밖에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 앞에서 우리 가족이 헤쳐 나가야 할 무거운 고통의 짐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암이라는 무서운 병의 진단 앞에서도 원영이는 담담했습니다. 늘 자신보다 엄마를 먼저 생각하며, 어떻게든 저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대장암에서 시작된 암은 폐와 간으로 전이되었고, 결국 32살의 젊은 나이에 4기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3일, 항암 치료를 처

음 시작하였지만 복용하는 약마다 늘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매일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항암의 횟수가 늘어 갈 때마다 고통스러운 통증과 가려움, 구토와 고열로 밤마다 눈물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가는 날도 짓았습니다. 1년 10개월의 투병 끝에, 젊은 32살의 몸은 병마에 점점 지쳐 갔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원영이를 붙잡고 저희는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 울며 기도하고, 매달리며 또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원영이에게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원영이는 힘든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앉은뱅 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원영이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는 꿈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원영이가 드리는 기도를 들을 때면, 제게는 너무나 맑고 순수하여 마치 사랑스러운 어린 양을 보는 듯했습니다.

2024년 12월 9일, 23차 항암을 마친 후 원영이는 조용히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항암은 그만하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을 할까’ 하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제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았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었지만 우리는 아들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영이가 늘 가고 싶어 했던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시민권 받은 이후 여권에 한 번

도 도장을 못 찍었어.” 그동안 생각만 하고 있었던 한국행 티켓을 끊던 날,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행복하게 웃던지요.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여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결국 몸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여행은 미뤄야 했습니다. 그 무렵 의사 선생님은 원영이에게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우리 가족은 충격적인 소식에 할 말을 잃고 서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원영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 이미 각오하고 있었잖아.” 현실을 받아들이며 체념한 듯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얼마나 많은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을까요. 하루하루 수척해져 가는 아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그 후 원영이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며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함께 울고 웃으며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영이는 오히려 친구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두렵지 않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 나의 34년 인생, 짧지만 주님의 은혜로 소중하게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해.” 원영이가 남기는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2025년 3월 28일, 원영이의 마지막 생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겨우 물만 몇 모금 넘기던 아들을 위해 저는 미역국과 흰쌀밥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생일이었기에,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은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원영이는 쌀밥 반 숟가락과 국물 반 숟가락을 먹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네, 고마워요”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간신히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년 생일에는 엄마가 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줄게.” 그러나 원영이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며 옆은 미소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날 오후, 심방하신 목사님들과 집사님들 앞에서 원영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침례를 받고 천국 문에 첫 도장을 받았으니,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말을 자신의 묘비에 새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보고 있어도, 듣고 있어도 믿기지 못할 상황 속에서 아들의 굳건한 믿음의 고백은 저를 무척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슬픈 마음을 얹누르며, 원영이가 천국행 티켓을 받은 것이라고 믿고 담담히 받아들이기로 노력했습니다. 가끔 통증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질 때마다 원영이는 우리를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엄마, 나 멀리 출장 간 거라고 생각해 줘. 나중에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돼요.” “나를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내가 건강했더라면 나중에 엄마를 보살펴 드렸을 텐데… 고생시켜서 미안해요. 나를 잘 보내 줄 수 있죠?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 그 말들은 마치 엄마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안심의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 현영이에게도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장자 역할을 너에게 맡겨서 미안해. 대신 엄마 아빠 잘 부탁해.”

마지막까지도 남겨진 가족들을 걱정하고,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고 간 우리 아들 원영이는 제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슴에 사무치도록 그리운 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원영이는 2025년 4월 5일 낮 12시 13분, 34년 7일을 살다가 조용히 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원영이의 천국 환송예배에는 예배당이 가득 찰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떠나는 아들을 배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보여 주었던 원영이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또래 청년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짧았지만, 원영이의 믿음과 사랑은 한 알의 밀알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평안히 쉬기를 기도하며, 저희는 언젠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원영이를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짧은 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며 사랑을 베풀고 배려했던 우리 아들, 엄마인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무엇보다 34년 동안 원영이 엄마로 살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하며 행복했습니다.

이 글을 쓰며 아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떠올라 가슴 깊은 슬픔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위로를 붙들며, 원영이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 교회 성도님들께 드리는 감사 인사

사랑하는 아들 원영이를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리며, 저희 가족을 위해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신 영암교회 목회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영암교회에서 자라난 원영이를 위해 베풀어 주신 따뜻한 사랑과 배려는 저희 가정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또한 주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성도님들 가정 위에도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최동석, 신미자 올림

편집자 주.

위 글은 고 김옥녀 권사님께서 손자의 발병을 알게되신 뒤 원영이가 살고 내가 가야하는데 라며 당신 자신도 체장암 투병 중 손자생각을 먼저 하시던 할머니의 사랑과 천국과 부활 소망으로 미소 지으시던 권사님의 믿음을 기억하며 기고합니다.

원영이는 1991년 3월 28일, 서울에서 최동석 신미자 사이의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원영이는 어린 시절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를 거치며 영암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02년, 부모님을 따라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후, 2025년까지 미국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이민 후에도 원영이는 꾸준히 신앙 안에서 삶의 중심을 지켜나갔으며, 중고등부 시절에도 성실히 예배에 참여하고 청년이 된 이후에는 교회 청년부의 일원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갔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찬양과 봉사, 나눔의 자리에도 기쁘게 참여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실하고 따뜻한 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암 투병을 시작한 원영이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믿음 안에서 담담히 견뎌내다가 2025년 4월 5일 34살의 나이로 하늘의 별이 되어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 마지막 대표기도



이성환 은퇴장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무감동, 무의식, 무책임, 무관심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어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으로 세우신 공동체, 남선교회 조찬기도회로 모여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유상진 담임목사님을 세우시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새로운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런저런 경무 중에도 지치지 않도록 담임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사랑으로 행복을 쌓으시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가족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소망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함께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은총을 받아 하루하루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짐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짐이 있으며, 가정의 짐도 있고, 나라의 짐도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주님께서 대신 쪄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구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가정의 장래, 자녀들의 문제, 나라의 운명까지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다섯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새벽에 우리들을 보시고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들어 주시옵소서. 이웃이 모르는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들의 아픔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신실한 일꾼들, 1·2·3·4·5 남선교회 회원들을 위해 기도 합니다.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함으로 더욱 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찢기고 얹히고 설친 아픔을 낫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가정과 가족들,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란 이름처럼 힘들어도 사랑하고 행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혼탁한 사회 속에서도 기쁨을 나누며 감사가 우선이 되는 따뜻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여호수아, 아브라함 회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때는 식탁 위에 꽃병이 놓여 있었지만 어느새 식탁 위에 약봉지가 줄 서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져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어두워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며, 말과 걸음걸이가 어눌해져 가지만 추하게 늙어가지 않게 하시고 늙어간다는 것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옵소서. 늙어가는 사실이 두렵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지혜로운 노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변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 즐겁게 사는 부지런한 노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어 주변을 돌아보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노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근사하고 멋이 넘치는 노년이 되게 하시어, “우리도 저렇게 늙고 싶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문제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강건한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Y**

2025년 10월 11일  
남선교회 조찬기도회에서



## 아틀리에 메멘토 모리⑥

# 105세 철학자의 현역 인생



강진구 안수집사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대한민국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빨리빨리 문화”의 나라답게 노인의 사회를 이루는 속도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그런데 막상 노인의 시절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더디기만 하다. 오래 살아도 병을 앓고 사는 노인들이 적지 않고, 빈곤한 상태에서 고독한 인생을 보내야 하는 노인의 비율 또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노후 준비가 가장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현실에서 증권 투자회사인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발표한 ‘돈 안드는 노후준비 7원칙’은 노후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있는 지침을 주고 있다.

1. 평생 현역 : 은퇴 후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하세요.
2. 평생 경제 : 젊어서 번 돈만으로 노후를 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후에도 경제 활동을 유지하세요.
3. 평생 건강 :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세요.
4. 평생 젊음 : 나이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고 새로운 도전을하세요.
5. 평생 관계 :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친한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6. 평생 공부 :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세요.
7. 평생 마음 계발 :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이 7가지 지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는 자세라 할 수 있다. ‘평생 현역’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신과 육체 그리고 사회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 등에서 나머지 6가지를 아우르며, 현실적으로 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 노후생활의 모범을 보여준 김형석 교수

1920년 일제강점기 시절 평양에서 태어나 도산 안창호 선생의 나라 사랑 강연을 들으며 자랐고, 윤동주 시인과는 숭실중 동기동창으로 어울려 놀았으며, 일본 조치대(上智大) 유학시절에는 김수환 추기경을 후배로 두며 대학생활을 했던 사람. 바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있는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다. 올해 나이 95세. 대학에서 퇴직을 했을 뿐 그는 아직도 현역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김형석 교수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란 자신의 철학을 몸소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까지”라고 말하는 김형석 교수는 육체의 나이와 영혼의 나이는 별개임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는 9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책을 집필하고, 100세가 넘어서도 대중 강연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자신만의 성실한 건강 관리의 비결을 넘어, 끊임없이 배우고 사유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적 호기심과 영적 갈망을 채워나가는 ‘성장하는 믿음’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시니어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제일 많이 빌려 본다는 김형석 교수의 저서 <백년을 살아보니>에는 다음과 같은 그의 노인을 위한 ‘성장의 철학’이 담겨있다.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한계가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다. 아무리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스는 기계와 같아서 노쇠하게 된다. 차라리 60대가 되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김형석 교수는 또한 “일하는 사람이 늙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일이란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자 ‘이웃을 향한 봉사’라고 말한다. 그 때문에 노후에는 일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그 안에는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는 사람은 많지만, 일을 준비하려고는 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있다.

### 장수에 담긴 하나님의 뜻

어릴 적 김형석은 가난한 집안 환경에다 영양실조로 비쩍 마른 몸에 자주 졸도하곤 해서 중학교 진학은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14살 되던 해 그의 모친은 인상 깊은 꿈을 꾼다. 아들이 두 손을 모아 무릎을 감싸고 앓아 있다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꿈이었다. 이 꿈 얘기를 들은 할머니는 손자가 곧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이 노년의 철학자는 믿고 있다. 그는 기적같이 승실중학교에 입학했고, 승실전문학교 학생들을 위한 부흥회에 참석하여 병아리가 껍질을 벗고 나온 것과 같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어머니가 꾼 꿈은 죽을 꿈이 아니라 신앙으로 태어날 꿈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후 기도의 내용은 바뀌기 시작했다. 단순하게 건

강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건강을 지켜주시면 평생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겠습니다’하는 전폭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게 되었다. 105세에 이르는 삶의 여정 동안 김형석 교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발견했고, 그때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Y**



#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강 창 윤  
(1남, 보문5)



강 혜 미  
(3040)



김 베 드 로  
(청년)



박 가 영  
(3여, 보문5)



박 수 권  
(아브라함,  
제기중구종로)



박 진 희  
(3040)



안 희 정  
(6여, 삼익1)



엄 성 경  
(3040)



유 석 현  
(3남, 용두)



류 재 오  
(4남, 안암3)



유 정 자  
(에스더, 안암3)



유 혜 진  
(3040)



윤애자  
(한나, 정릉2)



이대범  
(청년)



이미자  
(유니계, 안암8)



이서현  
(3040)



이호  
(3040)



진민정  
(3040)



조은석  
(3040)



조준희  
(청년)



진영일  
(4남, 보문6)



한미영  
(3040)



홍유찬  
(청년)

**[2025년 하반기]****찬양대헌신예배** 7월 6일(주일)**스위스 선교보고(수요기도회)** 9월 7일(주일)**교육부 여름사역 보고예배** 9월 7일(주일) 오후 찬양예배**소모임 하반기 개강** 9월 13일(토)**중고청 연합 찬양의 밤** 9월 13일(토)**새가족 환영오찬** 9월 14일(주일)**영암전도대 하반기 개강** 9월 16일(화)**세례입교식** 9월 28일(주일)**추수감사주일(모든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 찬양한마당** 10월 19일(주일)**제85회 정기노회 영암교회 개최(최성기 장로 장로노회장 취임)** 10월 28일(화)**늘푸른대학 가을소풍** 10월 30일(목)**교회 창립 71주년 기념 주일(창립기념 연합찬양)** 11월 9일(주일)**창립 71주년 특별새벽기도회** 11월 10일(월)–14일(금)**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11월 9일(주일)**글로리아중창단 여교역자안식관 찬양선교** 11월 14일(금)**3040 가을 나들이** 11월 15일(토)**영암전도대 백두산교회 방문** 11월 25일(화)**영암학당 가을학기**

10월 26일(주일) 8주간 “개혁자들의 신앙을 따라서” 최에스겔목사

10월 29일(수) 4주간 “무엇을 믿을 것인가②” 서예림 목사

12월 3일(수) 4주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최석빈 목사

**교육부 성탄축하발표회** 12월 21일(주일)**성탄절 예배 · 유아세례식** 12월 25일(목)**송구영신예배** 12월 31일(화)





136-073 서울 성북구 안암로 7길 66 영암교회

TEL. 924-6798 FAX. 927-9009

Young-Ahm Presbyterian Church

66, Anam-ro 7-gil, Seongbuk-gu, Seoul, KOREA

<http://www.youngahm.kr>

